meritz 메리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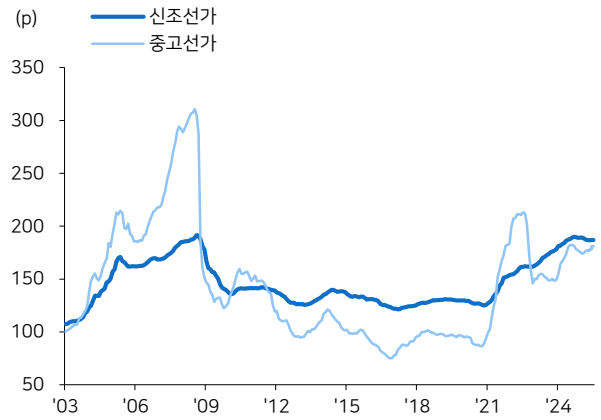
meritz 항해일지

2025. 7. 11 (금)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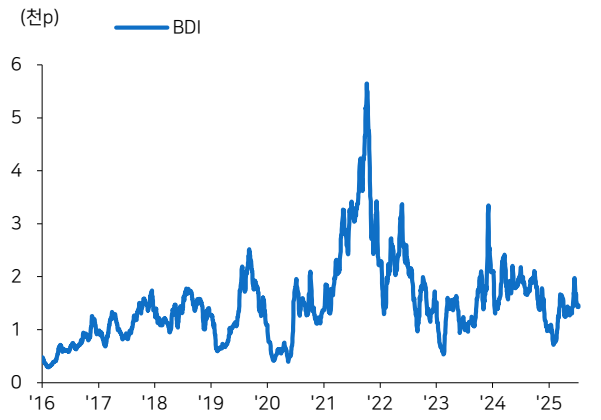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7.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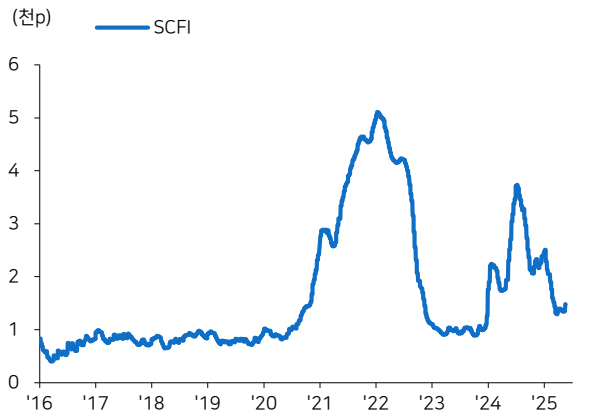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73.0달러(+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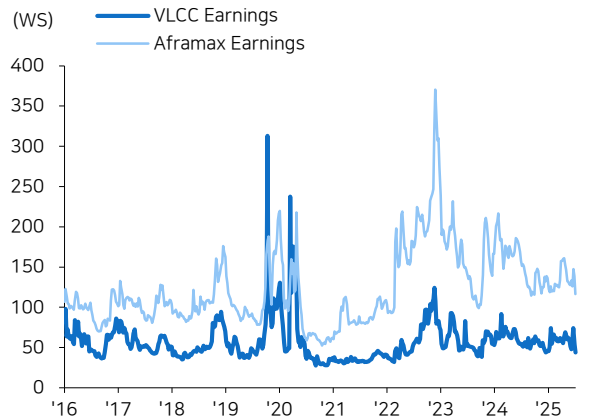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465.0p(+4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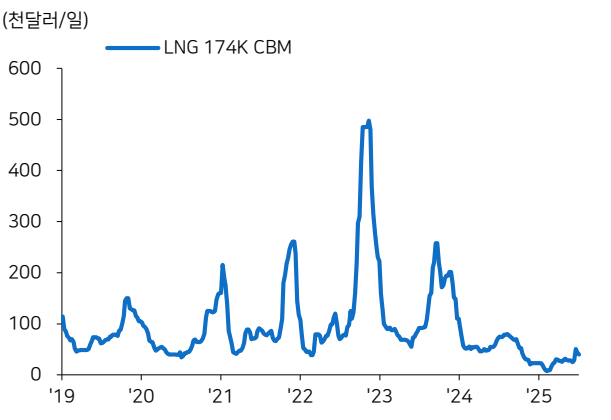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763.5p(-98.0p WoW)



VLCC Spot Rate 44.1WS(-9.7p WoW)



LNG Spot 운임 39.8천달러(-3.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현대중공업, 모로코 소마젝과 '원팀'...카사블랑카 신조선소 수주 '유력'

HD Hyundai Heavy Industries가 모로코 엔지니어링 기업 Somagec와 함께 카사블랑카 신조선소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며 유력 수주 후보로 부상했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약 3억 달러 규모로, 드라이 도크 · 부두 · 리프팅 플랫폼 · 갠트리 크레인 등을 포함한 약 21만㎡ 규모 조선소를 개발 ·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라고 전해짐. 입찰은 최소 10년 이상 조선소 운영 실적을 요구하며, 초기 입찰에 관심을 보인 프랑스 Naval Group은 불참했다고 알려짐. (더구루)(https://buly.kr/uUMjiK)

India plans eight 'mega' shipbuilding hubs in $5bn expansion drive

인도 정부가 20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국 진입을 목표로 초대형 선박 건조 · 수리 허브 8곳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본 계획에는 신규 부지 5곳과 기존 부지 3곳 확장이 포함되며, 칸들라에는 32만DWT급 VLCC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전해짐. HD현대중공업, 이마바리 조선, 미쓰비시 중공업, Maersk, Kongsberg Maritime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병행 중이며, 투입되는 해양 개발 기금은 총 2,500억 루피(약 30억 달러)라고 알려짐. (TradeWinds)(https://buly.kr/CsjtOhO)

현지 시설 짓고 금융 지원... HD현대·한화, 폴란드 잠수함 수주 경쟁

폴란드 해군의 8조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개별 경쟁 중이라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장보고-Ⅲ급 제안과 폴란드 현지 MRO 설비 구축 및 1억 달러 펀드 조성을 약속했으며,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2,300t · 3,000t급 잠수함을 제안하는 한편 Remontowa 조선소와의 MRO 협약을 통해 현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해짐. 두 기업은 본 프로젝트에 독자 대응 중이나, 향후 캐나다의 3000t급 잠수함 입찰에는 공동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짐. (조선비즈)(https://buly.kr/FLYUzVA)

"이젠 질보다 양"...조선 3사, 고부가가치선 비중 더 높인다

국내 조선 3사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올해 가스운반선과 FLNG 등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으로 선종 믹스를 개선하며 영업이익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됨. HD현대중공업은 수주잔고의 70%가 가스선(LPG, LNG, 에탄운반선)이며, 한화오션은 리플래깅을 활용한 미국 시장 집중 공략으로 LNG선 비중이 60%를 넘었다고 알려짐. 삼성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초대형 에탄운반선, LNG운반선 등을 수주했는데, 하반기에는 FLNG 수주가 예고되어 있다고 전해짐. (한국경제)(https://buly.kr/4QnWAvj)

German player signs three-year LNG deal with Middle East supplier

Securing Energy for Europe(SEFE)가 아랍에미리트 소재 Adnoc Gas와 4억 달러 규모의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SEFE는 올 여름부터 3년간 매년 70만 톤의 LNG를 공급받으며, 물량은 Adnoc Gas의 Das Island 액화설비(연간 600만 톤 규모)에서 출하된다고 알려짐. 이번 계약은 2022년 에너지 안보 및 산업 가속 협정, 2024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의 공동 선언 등 독일-아랍에미리트 간 에너지 파트너십 확대 기조를 반영한다고 전해짐. (Upstream)(https://buly.kr/9iGFvtS)

Guyana and Suriname set to thrive with nine FPSOs on stream by end of decade

FPSO의 수요가 고정식 인프라 대비 높은 경제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브라질 · 가이아나 · 수리남이 그 중심지라고 전해짐. 가이아나는 ExxonMobil 주도로 2029년까지 최소 7척의 FPSO를 투입해 하루 150만 배럴 원유와 15억 입방피트 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FPSO 제작은 SBM Offshore와 Modec이 맡는다고 알려짐. Suriname은 TotalEnergies 주도로 2028년 첫 해상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GranMorgu 유전에 더해 Petronas의 Block 52에서는 FLNG 투입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짐. (Upstream)(https://buly.kr/E79CKjl)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